

靑莊館 李德懋의 目錄論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heory of Systematic Bibliography of
Yi Deok-mu, a Great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일본서적 목록 |
| 2. 이덕무의 생애와 목록학적 배경 | 3.3 연행서점 목록 |
| 3. 이덕무 목록론의 실제 | 4. 이덕무 목록론의 평가 |
| 3.1 역사서 목록 | 5. 결론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청장관 이덕무(靑莊館李德懋)의 목록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덕무가 조선후기 대 문인이며, 문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녔으며, 나름대로 독서론과 교감론을 제창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풍부한 독서를 바탕으로 많은 목록학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덕무의 목록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선후기 목록학사상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要語: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 목록론

* 이 논문은 2007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0년 8월 28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theory of systematic bibliography of Cheongjangwan(靑莊館) Yi Deok-mu(李德懋) is examined. He was a man of great scholarship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well known that he was a great writer with an extensive knowledge about books, and advocated his own theories of reading and the textual bibliography. However, his abundant discussion on the theory of systematic bibliography based on his wide and profound reading, is not much known.

In this research, his theoretical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in the scholarship of bibliograph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investigated.

Key words: Cheongjangwan, Yi Deok-Mu, Systematic Bibliography, Catalog

1. 서론

청장관 이덕무(靑莊館李德懋)는 영조17년(1741)에 태어나서 정조 17년(1793)에 작고한 조선후기의 대학자이자 대문장가이다. 청장관은 대단한 호서가로서 그의 학문과 문장은 당대에 크게 떨쳤으나, 서자인 탓에 큰 벼슬은 하지 못하였다. 청장관은 당시 풍부한 독서생활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국문학, 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서지학분야의 연구로는 박문열,¹⁾ 박현욱,²⁾ 리상용³⁾의 것이 있다. 박문열은 청장관의 생애와 저술과 그의 『입연기(入燕記)』에 대해 다루었고, 박현욱은 청장관의 규장각 검서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리상용은 그의 교감론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밖에 국문학계의 문학론, 소설론, 시론, 독서론 등에 대한 연구, 교육학계의 교육사상, 독서론 등에 대한 연구, 사학계 및 철학계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청장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청장관이 대문장가, 실학자, 독서가라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서지학의 측면에서도, 그의 저술과 『입연기』, 규장각 검서관, 교감론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읽은 수많은 서적을 바탕으로 논의한 목록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장관전서』에 나타난 그의 목록론(目錄論)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덕무의 생애와 목록학적 배경

청장관 이덕무는 영조17년(1741년)에 부친 통덕랑(通德郎) 이성호(李聖浩)와

1)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6집(1987. 12), 187-214 ;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입연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국제개발연구원, 『국제문화연구』 제13집(1996. 3), 81-104.

2)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3) 리상용, “靑莊館 李德懋의 교감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33집(2006. 6), 375-394.

모친 반남 박씨(潘南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종의 별자(別子)인 무림군(茂林君) 이선생(李善生)의 10대손이다. 그의 자(字)는 명숙(明淑), 무관(懋官)이며 호는 청장관(靑莊館) 외에 형암(炯庵), 아정(雅亭), 선굴당(蟬橘堂) 등 20여개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⁴⁾

그는 조선후기에 서얼로 태어났다. 당시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신분으로 태어난 그는 가계마저 곤궁하여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⁵⁾ 그러나 그는 워낙 총명한 기질과 호서가(好書家)의 자질을 타고 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시작해서 21세가 될 때까지 일찍이 하루도 서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으며, 읽지 못한 책이나 기이한 책을 보면 그토록 기뻐했다⁶⁾고 할 정도로 책에 푹 빠져서 어려서부터 독서에 매진했던 것이다. 그의 엄청난 독서에 대해 연암 박지원은 이덕무의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가 평생 읽은 서적이 거의 2만권이 넘고, 손수 베껴 쓴 책 또한 수백 권에 달한다(平生所讀書 殆踰二萬卷 手抄蠅頭細字 亦且數百卷).”⁷⁾

이처럼 워낙 타고난 호서가인 그는 책에 푹 빠져서, 평생 수많은 책을 탐독하면서 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였던 것이다.

그의 책에 대한 지식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으면서 습득한 것 외에 연행(燕行)과 규장각 검서관 생활을 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독서생활을 하게 되었다.

청장관은 정조 2년(1778) 37세의 나이에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염조

4)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의 『청장관전서』 참조.

박지원, 行狀(『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5)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6집(1987. 12), 189-190.

6)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4 嬰處文稿2 看書痴傳

自塗鴉之年 至二十一歲 手未嘗一日釋古書 … 見未見書 輒喜而笑 家人見其笑 知其得奇書也.

7) 박지원, 行狀(『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 8 부록).

(沈念祖)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고수당(嶠秀堂), 문수당(文粹堂), 성경당(聖經堂) 등 여러 책방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열람하면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 서적의 목록을 조사하고, 수십종의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 곳에서 당대의 석학인 기균(紀均), 반정균(潘庭均), 이조원(李調元), 이정원(李鼎元)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⁸⁾

청장관은 정조 3년(1779년) 39세의 나이에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로 첫 관직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자이자 왕인 정조는 규장각 설립 후에 당대의 빼어난 학자들을 검서관에 등용하였는데, 청장관은 그 일환으로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등과 함께 초대검서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거기에서 약 14년 간 근무하는 동안 규장각신을 비롯한 많은 당대의 대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그는 어제(御製), 일성록(日省錄), 교지(教旨) 등과 관련된 문서를 정서하고 교정하였으며, 『송사전(宋史箋)』, 『무예도보(武藝圖譜)』, 『규장전운(奎章全韻)』,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당시 편찬된 명찬서의 정리와 교감작업을 하는 등 도서편찬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⁹⁾ 그는 규장각의 관직생활을 통해서 서적의 편찬, 교정, 목록작업 등을 했으며, 그 곳에서의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그의 서적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높아졌을 것이다.

다음 글은 그의 목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글이라 하겠다.

“내가 한가할 때에 널리 패기(稗記)와 문집(文集)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범례를 정하여 두우(杜佑)의 『통전(通典)』,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립(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본떠서 우리나라에 길이 전할 책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첫째로 도와 협력해 줄 사람이 없는 것과 둘째로 글씨를 잘 써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余欲於暇日 廣集稗記文集 分門起例 倣杜佑通典 鄭樵通志 馬端臨通考 以爲東國不刊之典 而只恨第一無羽翼協力者 第二無筆札書工也).”¹⁰⁾

8)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6, 67, 入燕記 上, 下.

9) 이서구, 墓誌銘(『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박지원, 行狀(『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이광규, 先考府君遺事(『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3, 記 檢書廳記.

이처럼 이덕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삼통(三通)에 버금가는 책을 편찬할 계획을 하였다. 특히 『문헌통고』의 경우 『경적고』가 있는 점으로 보아, 그가 비록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일대 목록을 만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장관은 어려서부터의 독서생활, 연행, 규장각 검서관 등을 통해서 서적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쌓게 되고 이 같은 바탕에서 목록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3. 이덕무 목록론의 실제

이덕무는 조선시대의 서지학자인 김휴, 서호수, 서유구, 홍석주 등과는 달리 독립적인 목록을 편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는 그가 특정 주제 분야 또는 특정 국가의 서적에 대해 작성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청장관전서』에 산재되어 수록된 이덕무의 목록학적인 업적을 모아서 1) 역사서 목록, 2) 일본서적 목록, 3) 연행서점 목록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청장관의 목록론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3.1 역사서 목록(歷史書目錄)

청장관은 『양엽기(盎葉記)』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서’란 제목으로 우리 역사서적 65종에 대한 목록과 그의 해제를 붙이고 있다. 그는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 신라의 『계림잡전』, 『화랑세기』 등으로부터 조선후기 이세환(李世煥)의 『속동유사우록(續東儒師友錄)』 등에 이르기까지 65종의 서적에 대한 목록과 해제를 열거하고 있다. 먼저 이들 서적의 목록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1, 耳目口心書4.

□ 청장관의 역사서 목록

- 「留記」 / 有人記事
「新集」 / 李文眞
「鷄林雜傳」 / 金大問 著
「花郎世記」 / 金大問 著
「新羅殊異傳」 / 崔致遠 著
「古今錄」 / 朴寅亮 著
「三國史記」 / 高麗仁宗命金富軾撰進
「三國史略」 / 河崙, 李詹, 權近 等
「三國史節要」 / 徐居正 編進
「三國遺事」 / 一然 撰
「高麗本史」 / 金宗瑞, 鄭麟趾 撰
「高麗國史」 / 我太祖命鄭道傳鄭搃等撰進
「校讐高麗史」 / 柳觀, 卞季良
「高麗史略」 / 李齊賢 撰
「高麗史節要」 / 李克堪 等
「東國通鑑」 / 撰者闕
「東國通鑑」 / 徐居正 撰
「東國史略」 / 權近 撰
「東國史略」 / 朴祥 撰
「東國史略」 / 李塙 撰
「東國史略」 / 柳希齡 撰
「東國史略」 / 閔齊仁 撰
「東史纂要」 / 吳滄 撰
「編年通錄」 / 金寬毅 撰
「編年綱目」 / 忠宣王命閔漬修撰
「王代宗錄」 / 金寬毅 撰
「世代編年」 / 忠穆王命李齊賢等
「編年通載」 / 睿宗命洪灌撰集
「古今金鏡錄」 / 李穡, 李仁復 撰
「金鏡錄」 / 鄭可臣 撰
「帝王韻紀」 / 李承休 撰
「治平要覽」 / 英廟命儒臣撰
「歷代世紀」 / 闕撰人
「歷代年表」 / 徐居正 撰
「歷代年紀」 / 金時習 撰
「歷代帝王紀」 / 闕撰人
「歷代歌」 / 吳世文 撰
「歷代世年歌」 / 英廟命大提學尹淮 判書權蹈撰次

- 「歷代要錄」 / 柳希春 編
- 「國朝寶鑑」 / 世祖朝命申叔舟等撰
- 「東海野言」 / 許筠 袁粹
- 「石潭日記」 / 李珥 撰
- 「野史初本」 / 李植 撰
- 「麗史提綱」 / 俞樾 撰
- 「東史會綱」 / 林象德 撰
- 「東史綱目」 / 安鼎福 撰
- 「東國歷代總目」 / 洪萬宗 撰
- 「歷代帝王傳世圖」 / 朴縡 撰
- 「經世指掌」 / 洪啓禧 撰
- 「皇極一元圖」 / 徐命膺 撰
- 「東史撮要」 / 闕撰人
- 「春坡日月錄」 / 李星齡 撰
- 「青野漫輯」 / 李震秀 撰
- 「震乘記要」 / 闕撰人
- 「東圃彙言」 / 金時煒 撰
- 「紀年兒覽」 / 李萬運 撰
- 「東賢事蹟」 / 權近 編
- 「東國名臣行蹟」 / 闕撰人
- 「東國名臣言行錄」 / 柳成龍 撰
- 「東國名臣言行錄」 / 周世鵬 撰
- 「東國名臣錄」 / 金埴 撰
- 「東名臣錄」 / 呂光憲 編
- 「國朝名臣錄」 / 宋成明 輯
- 「東儒師友錄」 / 朴世采 輯
- 「續東儒師友錄」 / 李世煥 輯

청장관은 역사서에 대한 목록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밖에 야사(野史)의 부류로 『조야침재(朝野僉載)』, 『조야기문(朝野記聞)』, 『해동야승(海東野乘)』 등과 같은 부류가 있지만,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상에서 기록한 책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책은 전해지는 것도 있고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으며, 어떤 책은 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역사가의 저술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此外野史之流 若朝野僉載 朝野記聞 海東野乘之屬 不可勝記. 以上所錄不過耳目所及 或傳或不傳 或不刊行者 而史家者流 想不止此).”¹¹⁾

1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4, 叢葉記1.

청장관은 기존의 목록과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서에 대한 해제목록을 작성했지만,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란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역사서 목록을 정리한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1.1 역사서 목록에 수록된 서적의 시대별 구분

앞에서 살펴본 65종의 목록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고구려시대의 저작으로는 「유기(留記)」와 「신집(新集)」 등 2종이 있고, 신라시대의 저작으로는 「계림잡전(鷄林雜傳)」, 「화랑세기(花郎世記)」,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 등 3종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저작으로는 「고금록(古今錄)」,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략(高麗史略)」, 「편년통록(編年通錄)」, 「편년강목(編年綱目)」, 「왕대종록(王代宗錄)」, 「세대편년(世代編年)」, 「편년통재(編年通載)」, 「고금금경록(古今金鏡錄)」, 「금경록(金鏡錄)」, 「제왕운기(帝王韻紀)」, 「역대가(歷代歌)」 등 13 종이 있으며, 이밖에 시대가 다소 애매한 저작으로 「역대제왕기(歷代帝王紀)」, 「동국명신행적(東國名臣行蹟)」 등 2종이 있다. 나머지 45종은 조선시대의 저작들이다.

3.1.2 서적의 당파별 구분

3.1.2.1 저자의 학파와 당파를 통해서 본 한국본의 성격

청장관이 이 역사서목록이 수록된 양엽기(叢葉記)를 편찬한 것은 조선후기의 일이다. 당시 정조가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그 이전과 비교해 당쟁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각 당파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던 시기이다. 여기에서는 이덕무가 역사서목록을 작성하면서 특정 당파(黨派)의 인물만 선정했는지 아니면 당파를 초월해서 역사서목록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역사서목록 가운데 조선시대의 저작은 45종인데, 그 가운데, 조선후기 당쟁의

연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동인과 서인의 분과 시점인 1575년(선조 8년) 이후에 나온 저작으로는 대략 20여종에 이른다. 이들의 저작을 대상으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론에 속한 인물의 저작으로는 대표적인 소론 학자인 박세채(朴世采)의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임상덕(林象德)의 『동사회강(東史會綱)』, 이세환(李世煥)의 『속동유사우록(續東儒師友錄)』, 송성명(宋成明)의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남인 계열에 속한 인물의 저작으로는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홍만중(洪萬宗)의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유성룡(柳成龍)의 『동국명신언행록(東國名臣言行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서인 노론 계통의 저작으로金玉(金埴)의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 이이(李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홍계희(洪啓禧)의 『경세지장(經世指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역사서목록에 수록된 저자의 당파를 살펴본 결과, 노론, 소론, 남인의 저작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특이한 사항은 소론과 남인의 저작을 좀 더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은 청장관이 그들에 대한 친분관계보다는 아무래도 벼슬에서 소외되어 비교적 저술 시간을 많이 갖았던 소론과 남인의 인물들이 역사서를 좀 더 많이 편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노론 벽파에 맞서서 소론, 남인, 서얼까지 폭넓게 고르게 등용하는 등 당시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정조는 당시의 집권 세력인 노론층에 대한 제압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실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남인 출신인 정약용과 이가환, 서얼 출신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 4검서관을 등용한 것이다. 특히 규장각 4검서관의 등용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일대 사건이었다.

청장관은 당시 소외되었던 남인과 북학과 출신의 인물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조에게 발탁되어 벼슬을 하게 되고, 재임기간 동안 많은 칭찬과 하사품까지 받은 그가 정조의 탕평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그의 성향은 역사서목록을 작성하는데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

서 그의 역사서목록에 수록된 저작은 비교적 당과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1.3 조선시대 해제목록에의 수록상황 비교

여기에서는 이덕무가 우리나라의 역사서로 열거한 서적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누판고(鏤板考)』, 『서서서목첩록(西序書目籤錄)』, 『서서서목초본(西序書目草本)』,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 등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 서적의 수록상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청장관 역사서적의 조선후기 해제목록에의 수록상황

서명/ 목록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洪氏讀書錄
留記	○ 사기류1	×	×	×	×
新集	○ 사기류1	×	×	×	×
鷄林雜傳	○ 사기류2	×	×	×	×
花郎世記	○ 사기류2	×	×	×	×
新羅殊異傳	○ 사기류2	×	×	×	×
古今錄	○ 사기류2	×	×	×	×
三國史記	○ 사기류1	×	○ 사부정사류	○ 사부정사류	○ 사부편년
三國史略	○ 사기류1	×	×	×	×
三國史節要	○ 사기류1	×	×	×	×
三國遺事	○ 사기류1	×	×	×	×
高麗本史	○ 사기류1	×	○ 사부정사류	○ 여정류	○ 사부기전
高麗國史	○ 사기류1	×	×	×	×
校讐高麗史	○ 사기류1	×	×	×	×
高麗史略	○ 사기류1	×	×	×	×
高麗史節要	○ 사기류1	×	×	×	×
東國通鑑(撰者闕)	○ 사기류1	×	×		×
東國通鑑(徐居正)	○ 사기류1	×	○ 사부편년류	○ 여정류	×
東國史略(權近)	○ 사기류1	×	×	×	×
東國史略(朴祥)	○ 사기류1	×	×	×	×
東國史略(李瑒)	○ 사기류1	×	×	×	×

서명/ 목록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洪氏讀書錄
東國史略(柳希齡)	○ 사기류1	×	×	×	×
東國史略(閔齊仁)	○ 사기류1	×	×	×	×
東史纂要	○ 사기류1	×	○ 사부사초류	○ 사부정사류	×
編年通錄	○ 사기류1	×	×	×	×
編年綱目	○ 사기류1	×	×	×	×
王代宗錄	○ 사기류1	×	×	×	×
世代編年	○ 사기류1	×	×	×	×
編年通載	○ 사기류1	×	×	×	×
古今金鏡錄	○ 사기류1	×	×	×	×
金鏡錄	×	×	×	×	×
帝王韻紀	○ 사기류1	×	×	×	×
治平要覽	○ 사기류1	×	○ 사부장고류	○ 사부장고류	×
歷代世紀	×	×	×	×	×
歷代年表	○ 사기류1	×	×	×	×
歷代帝王紀	○ 사기류1	×	×	×	×
歷代歌	○ 사기류1	×	×	×	×
歷代世年歌	○ 사기류1	×	×	×	×
歷代要錄	○ 사기류1	×	×	×	×
國朝寶鑑	○ 사기류1	○ 어정	○ 사부장고류	○ 어정류	○ 사부편년
東海野言	○ 사기류1	×	○ 사부잡사류	○ 사부잡사류	×
石潭日記	×	×	×	×	×
野史初本	×	×	×	×	×
麗史提綱	×	○ 사부통사류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
東史會綱	×	×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
東史綱目	×	×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
東國歷代總目	×	×	○ 사부편년류	○ 사부편년류	×
歷代帝王傳世圖	×	×	×	×	×
經世指掌	×	×	×	×	×
皇極一元圖	×	○ 어정	×	×	×
東史撮要	×	×	×	×	×
春坡日月錄	×	×	×	×	×
靑野漫輯	×	×	○ 사부잡사류	○ 사부잡사류	○ 사부야사
震乘記要	×	×	×	×	×
東圃彙言	×	×	×	×	×
紀年兒覽	×	×	×	×	×
東賢事蹟	×	×	×	×	×
東國名臣行蹟	×	×	×	×	×
東國名臣言行錄(周世鵬)	○ 사기류2	×	×	×	×

서명/ 목록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洪氏讀書錄
東國名臣言行錄(柳成龍)	○ 사기류2	×	×	×	×
東國名臣錄	×	×	○ 사부전기류	○ 사부전기류	×
東名臣錄	×	×	×	×	×
國朝名臣錄	×	×	×	○ 사부전기류	○ 사부비사
東儒師友錄	×	×	○ 자부유가류	○ 사부전기류	×
續東儒師友錄	×	×	×	×	×
朝野僉載	×	×	×	×	○ 사부야사
朝野記聞	×	×	○ 사부잡사류	○ 사부잡사류	×
海東野乘	×	×	×	×	×

* 수록된 경우는 ○, 수록되지 않은 경우는 ×로 표시함.

먼저 이들 역사서의 수록상황을 살펴보면, 『해동문헌총록』에 40종, 『이덕무』에 3종, 『서서서목침록』에 15종, 『서서서목초본』에 16종, 『홍씨독서록』에 9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상황으로 보아서 특이한 사항은 『해동문헌총록』에 있는 서적들이 가장 많이 수록된 점이다. 각 해제목록에서 저작의 수록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서명과 해제의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였는데,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저록들과 비교하면서 다소 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40종의 서적은 대부분 사기류(史紀類)에 수록된 저록이었다. 사기류1에 수록된 서적이 34종이고, 사기류2에 수록된 서적이 6종이다. 특히 『해동문헌총록』 사기류1에 수록된 전체 저록이 37종인데 이 가운데 이덕무의 역사서 목록에 수록된 저록은 34종이나 된다. 동일 서명의 경우 기술상에 차이가 있었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각 서명마다 해제를 각각 기술한 반면, 이덕무는 서명을 하나로 잡고 그 해제에서 다른 저자명을 밝혀주었다. 예를 들면, 『동국사략』의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는 5개의 엔트리로 구분하여 각각 기술한 반면, 이덕무는 하나의 엔트리로 잡고 거기에서 5명의 저자를 밝혀 준 것이다.

수록된 저록을 대상으로 해제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청장관이 작성한 해제의 내용이 『해동문헌총록』의 것을 참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해동문헌총록』 해제의 내용을 초록했으며, 거의 똑같이 전제한 경우도 있었다. 『해동문헌총록』의 편찬연도가 1638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덕무가 당시

까지 수록된 역사서는 『해동문헌총록』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누판고』에 수록된 저록은 3종인데, 어정(御定)에 분류된 『국조보감』과 『황극일원도』, 사부 통사류에 분류된 『여사제강』 등 3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다. 해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국조보감』의 경우 누판고의 해제를 참고하되, 청장관이 그 내용을 다소 보강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서서목첨록』(이하 『첨록』)과 『서서서목초본』(이하 『초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첨록』에 15종, 『초본』에 16종이 수록되었다. 『초본』의 사부 전기류에 『국조명신록』 1종이 더 추가되어 있어 양 목록 간에 1종의 차이가 있었다. 『첨록』에서 사부 정사류에 분류한 『고려본사』, 편년류에 분류한 『동국통감』, 장고류에 분류한 『국조보감』을 『초본』에서는 어정에 수록하였다. 『동사찬요』의 경우 『첨록』에서는 사초류에 분류한 것을, 『초본』에서는 정사류에 분류하였고, 『동유사유록』의 경우 『첨록』에서는 자부 유가류에 수록한 것을 『초본』에서는 사부 전기류에 수록하여, 동일 저작이라도 『초본』과 『첨록』 간에 분류상의 차이가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홍씨독서록』에는 9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다. 『홍씨독서록』의 경우 청장관 사후 17년 후에 편찬된 책이므로, 오히려 『홍씨독서록』의 편자인 홍석주가 이덕무의 역사서목록을 참조 하였는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해제의 내용이나 목록의 기술방식 면을 고려할 때 홍석주가 참조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덕무가 열거한 역사서적 가운데 『해동문헌총록』이 나온 1663년 이전에 나온 역사서의 경우 주로 『해동문헌총록』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서적은 『서서서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장관이 규장각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서적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역사서목록에 수록할 서적을 선정하는데 『해동문헌총록』의 내용을 참고한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존 목록에 나타난 내용을 상당 부분 초록한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3.2 일본서적 목록(日本書籍目錄)

청장관은 『청장관전서』의 『청령국지(蜻蛉國志)』 예문편(藝文編)에서 일본서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청령국지』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방대하게 기술한 것인데, 그 책의 예문편(藝文編)에서 일본의 서적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청령국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일본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그의 스승인 연암 박지원 역시 그가 쓴 행장(行狀)에서 청장관이 마치 일본에 다녀온 사람처럼 일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 주었다.¹²⁾

실제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없는 그가 일본에 대한 책을 저술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지니게 된 것은 기왕에 일본 사행을 다녀온 성대중, 원중거, 오재희, 조신 등과의 교류와 사행사신들이 가져온 일본에 대한 문헌을 통한 연구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일본에 다녀온 후로부터 당시 북학과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덕무는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등과 일본에 대해 토론하면서 일본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시 기존의 일본관을 수정하고, 나름대로의 일본관을 정립하게 되었다.¹³⁾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를 하면서, 책별로 청장관이 일본의 서적에 관심을

12) 박지원, 行狀(『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君嘗自言 我苟當有事時 使絕國規機謀 庶幾不下於人 嘗遇人漂海還 問彼中事 歷歷如躬履其土 其人驚曰 公何時過海 故記日本世系地圖風謠土產爲蜻蛉國志.

『연암집』 권3에 있는 炯菴行狀에 『蜻蛉國志』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蜻蛉國志는 일본의 世系. 지도. 풍속, 언어. 물산을 기록한 것이다.”라고만 간략히 기술하여, 雅亭遺稿 附錄에 수록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

13) 하우봉, “이덕무의 청령국지에 대하여,” 『전북사학』 9(1985), 163-167;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12(1986), 94-99;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1988, 서강대학교 대학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그는 「청령국지」 예문편에서 일본서적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역사서목록과 기타 일본서적목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2.1 일본 역사서목록

청장관은 일본삼부분서(日本三部本書)란 제목 하에 일본 고대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구사기(舊事記)」, 「고사기(古事記)」, 「일본기(日本紀)」의 해제를 기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육국사(日本六國史)란 제목 하에 「일본기(日本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문덕실록(文德實錄)」, 「삼대실록(三代實錄)」의 해제를 기술하고 있다. 그 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삼부분서(日本三部本書)

「구사기(舊事記)」: 추고(推古) 28년(620)에 구호황자(厩戶皇子)와 소아마자(蘇我馬子)가 지었다. 모두 10권이며, 개벽(開闢)부터 당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舊事記 推古二十八年 厩戶皇子 蘇我馬子撰 凡十卷 自開闢迄當代).

「고사기(古事記)」: 원명(元明)의 화동(和銅) 5년(712)에 안만려(安萬侶)가 지었다. 신대(神代)부터 추고 때까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다(古事記 元明和銅五年 萬安侶撰 自神代迄推古 凡三卷).

「일본기(日本紀)」: 안마려(安麻呂)가 지었다. 신대부터 지통(持統)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日本紀 安麻呂撰 自神代至持統).

□ 일본육국사(日本六國史)

「일본기(日本紀)」 삼부분서(三部本書) 중의 일본기와 같은 책: 30권이며 안마려가 지었다. 신무(神武)부터 지통(持統) 11년(697)까지 9백 63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日本紀 三十卷 安麻呂撰 自神武至持統十一年 凡九百六十二年).

「속일본기(續日本紀)」: 40권이며 관야진도(菅野眞道), 등원계승(藤原繼繩) 등이 지었다. 문무(文武) 원년 정유(697)부터 환무(桓武)의 연력(延曆) 10년

(791)까지 95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續日本紀 四十卷 菅野眞道 藤原繼繩 等撰 起文武元年丁酉 至桓武延曆十年 凡九十五年).

『일본후기(日本後紀)』: 등원서사(藤原緒嗣)가 지었다. 환무의 연력 11년(792)부터 순화(淳和)의 천장(天長) 10년(833)까지 42년간의 일인데, 전서(全書)는 지금 망실하고 20권을 초략(抄略)하여 아울러 1권으로 편찬한 것만이 있다(日本後紀 四十卷 藤原緒嗣撰 起桓武延曆十一年 止淳和天長十年 凡四十二年 而全書今亡 只有抄略二十卷 并纂一卷).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등원양방(藤原良房), 춘정선승(春澄善繩) 등이 지었다. 인명(仁明)의 실록(實錄)인데, 천장(天長) 10년부터 가상(嘉祥) 3년(850)까지 18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續日本後記 良房後春澄善繩等撰 仁明實錄也 起天長十年 止嘉祥三年 凡十八年).

『문덕실록(文德實錄)』: 10권. 도양향(都良香)이 지었다. 가상(嘉祥) 3년부터 천안(天安) 2년(858)까지 9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文德實錄十卷 都良香撰 起嘉祥三年 訖天安二年 凡九年).

『삼대실록(三代實錄)』: 50권. 대장선행(大藏善行)이 지었다. 천안(天安) 2년부터 인화(仁和) 3년(887)까지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三代實錄 五十卷 大藏善行撰 起天安二年 訖仁和三年 凡三十年).

3.2.2 기타 일본서적목록

청장관은 일본 서적에 대해서 이루 다 적을 수 없지만, 보고 들은 대로 순서 없이 대강 실는다고 전제하면서 서명과 저자를 열거하고 있다. 저자를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2.1 저자를 기재한 경우

청장관은 저자를 기재한 일본 서적 74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塵劫記」 / 吉田氏
「新古今集」, 「新勅撰集」 / 藤正家
「續古今集」, 「續後撰集」 / 藤爲家
「新續古今集」 / 藤雅世
「萬葉和歌集」 / 竹取翁
「源氏物語」 / 紫式部
「羅山文集」 / 林道春
「太平記」 / 玄惠
「元亨釋書」 / 虎關
「桃蕊編」 / 道宗
「天下白」 / 漆桶居士
「經國集」 / 島峯安世
「扶桑略記」 / 皇圓
「奧儀抄」 / 清輔
「朗詠集」 / 公任卿
「諸經要文」 / 親鸞
「選擇集」 / 源空
「教行信證」 / 親鸞
「慕京集」 / 源道灌
「彌陀經注記」, 「曼陀羅抄」 / 酉譽
「庭訓」 / 玄惠
「安國論」 / 日蓮
「甲陽軍鑑」 / 高坂彈正
「法華經注」 / 最澄
「研心章」 / 護命
「十住心論」 / 空海
「金光明經注」, 「仁王經注」, 「無量義經注」 / 最澄
「天台義集」 / 義真
「一乘要訣」, 「往生要集」, 「阿彌陀經疏」, 「大乘對俱舍抄」, 「天台宗二十七疑問」 / 惠心
「嘉文亂記」 / 垂水廣信
「徒然草」 / 兼好
「廣釋流義」 / 宇多倭皇
「舉白集」 / 際俊
「大悉曇章」 / 安然
「花傳抄」 / 惠慈
「小卷物大卷物祕傳抄」 / 惠好
「寶物集」 / 平泰賴
「狂雲集」 / 宗純
「歸命本願抄」, 「西要抄」, 「往生至要訣」 / 證賢
「觀經疏記」 / 圓空

- 「愚禿抄」, 「文類聚抄」 / 親鸞
- 「立正治國論」 / 日親
- 「三國佛法傳通緣起」 / 凝然法師
- 「律令」 / 淡海公
- 「淨土源流章」 / 凝然法師
- 「聖筆緣起」 / 菅丞相
- 「諸經注釋」 / 常騰
- 「無明抄」 / 長明
- 「寶蓮華寺緣起」 / 義教
- 「蕉堅集」, 「蕉堅語錄」 / 中津
- 「民部省禮」 / 清麻呂
- 「峨草稿」 / 月潭和尚
- 「僧寶傳」 / 高泉
- 「四書疏林」 / 竹田誠直
- 「童子問」, 「論孟古義」, 「論孟字義」 / 伊藤維禎
- 「徂徠集」, 「論語徵」 / 物部雙柏
- 「和漢名數」 / 貝原篤信
- 「和漢三才圖會」 / 寺島尙順

3.2.2.2 저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청장관은 저자 미상 서적 111종에 대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 | | |
|----------|---------|---------|
| 「辨色立成」 | 「枕雙紙」 | 「方角抄」 |
| 「平家物語」 | 「良材集」 | 「神社啓蒙」 |
| 「淨琉璃著聞集」 | 「清少納言」 | 「風土記」 |
| 「公事根源」 | 「本朝食鑑」 | 「帝王編年紀」 |
| 「奇異雜談」 | 「聖皇本紀」 | 「一宮記」 |
| 「懷風藻」 | 「谷響集」 | 「碧岩集」 |
| 「古今倭歌集」 | 「世風記」 | 「神仙傳」 |
| 「作者部類」 | 「世彥物語」 | 「職原抄」 |
| 「姓氏錄」 | 「聽雨齋集」 | 「大全大雙紙」 |
| 「伊勢物語」 | 「江家次第」 | 「義楚六帖」 |
| 「倭漢軍記」 | 「四季物語」 | 「五鳳集」 |
| 「西宮記」 | 「寂寞草」 | 「類聚國史」 |
| 「耆婆萬病」 | 「群忌際集」 | 「本朝文粹」 |
| 「圓天木集」 | 「寶積寺緣起」 | 「鎌倉志」 |

- | | | |
|----------|---------|----------|
| 「陸奥話記」 | 「神名帳」 | 「紀貫之集」 |
| 「人雲御抄」 | 「儀式帳」 | 「續古事談」 |
| 「北條九代記」 | 「河海抄」 | 「政事略」 |
| 「塵塚物語」 | 「春雨集」 | 「峯相記」 |
| 「懷中集」 | 「松下集」 | 「二十二社注式」 |
| 「源平盛衰記」 | 「職員令」 | 「金玉集」 |
| 「東鑑」 | 「王年代紀」 | 「玉葉集」 |
| 「奥州後三年記」 | 「二水記」 | 「東齋隨筆」 |
| 「神系圖緣起略」 | 「駿牛繪詞」 | 「明玉集」 |
| 「大和本起」 | 「辭世集」 | 「撰集抄」 |
| 「埃囊抄」 | 「人群集」 | 「十訓抄」 |
| 「八大童子軌」 | 「碁經」 | 「社說下學集」 |
| 「鎌倉大草子」 | 「筑波集」 | 「乾元二年記」 |
| 「法眼淨賀傳」 | 「犬筑波集」 | 「源氏玉葛卷」 |
| 「瓜雅集」 | 「過去帳」 | 「六狀」 |
| 「方丈記」 | 「神代卷」 | 「搏桑文選」 |
| 「智證大師年譜」 | 「性靈集」 | 「武刃兵術冊」 |
| 「卜部家說」 | 「竹取物語」 | 「袖中抄」 |
| 「圓應禪師語錄」 | 「住吉舊記」 | 「訓閱集」 |
| 「安樂外記」 | 「鉤狐狂言」 | 「諸神記」 |
| 「萬代集」 | 「持名抄」 | 「名法要記」 |
| 「大神宮式」 | 「熊野御行記」 | 「正統紀」 |
| 「神名略記」 | 「熊野王子記」 | 「百練抄」 |

이상에서 청장관이 열거한 일본서적들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이들 서적은 우리나라의 해제서목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책으로, 당시 일본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사대주의적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던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중국 방문기인 연행록(燕行錄)과 일본 방문기인 일본사행록(日本使行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신이 연행(燕行)을 갈 경우 대개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서점에 가서 목록을 작성하거나 구입해 오고, 그

곳의 대학자들과 많은 학문적인 담론을 하는 등 그 같은 기회를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에 갈 경우 대개 중국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글씨를 간청하고 우리나라의 서적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배우려고 열을 올렸던 것이다.

1655년 을미사행(乙未使行)으로 일본에 다녀온 남용익(南龍翼)이 쓴 글은 당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본서적에 대한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서적으로는 『일본기(日本紀)』, 『속일본기(續日本紀)』, 『풍토기(風土記)』, 『신사고(神社考)』, 『본조문수(本朝文粹)』 등의 글이 있지만 괴誕(怪誕)하고 박잡(駁雜)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書籍則有日本記續日本記風土記神社考本朝文粹等書 而怪誕駁雜 皆無可觀者).”¹⁴⁾

이처럼 당시에 일본의 서적에 대해 볼 것도 없다고 격하하고 있고, 일본사행록을 훑어보아도 조선 사신들이 일본의 서적을 구입해 왔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장관이 일본 서적에 관심을 두고 목록을 작성한 것은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웃국인 일본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는 좋은 서적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연행서점 목록(燕行書店目錄)

청장관은 정조 2년(1778) 37세 때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유리창에 있는 여러 서점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열람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 서적의 목록을 조사하고, 수십 종의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청장관전서』 제67권 『입연기』에서 일자 별로 자신이 방문한 서점과 서책목록, 또 탐독한 서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가 작성한 목록을 각 서점별로

14) 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승수당(嵩秀堂)서점 목록(37종)

「通鑑本末」	「太岳集」	「鐵網珊瑚」
「文獻續纂」	「陶石簣集」	「玉茗堂集」
「協紀辨方」	「升菴外集」	「傳道錄」
「精華錄」	「徐節孝集」	「高士奇集」
「賦彙」	「困勉錄」	「溫公集」
「欽定三禮」	「池北偶談」	「唐宋文醇」
「中原文憲」	「博古圖」	「經義考」
「講學錄」	「重訂別裁」	「古事苑」
「皇華紀聞」	「古文奇賞」	「笠翁一家言」
「自得園文鈔」	「西堂全集」	「猗園」
「史貫」	「帶經堂集」	「子史精華」
「傅平叔集」	「居易錄」	
「陸樹聲集」	「知新錄」	

□ 문수당(文粹堂)서점 목록(16종)

「程篁墩集」	「儀禮節略」	「義門讀書記」
「史料」	「冊府元龜」	「王氏農書」
「范忠宣公集」	「獨制詩」	「山左詩鈔」
「欒城後集」	「文體明辨」	「墨池編」
「圖繪寶鑑」	「名媛詩鈔」	
「方輿紀要」	「鈐山堂集」	

□ 성경당(聖經堂)서점 목록(20종)

「弇州別集」	「青箱堂集」	「本草經疏」
「感舊集」	「昭代典則」	「閒暑日鈔」
「路史」	「格致錄」	「倪元璐集」
「潛確類書」	「顧端公禠記」	「史懷」
「施愚山集」	「沈礪土集」	「本草匯」
「紀纂淵海」	「通考紀要」	「曹月川集」
「書影」	「由拳集」	

□ 명성당(名盛堂)서점 목록(15종)

「寄園寄所寄」	「漁洋三十六種」	「內閣上諭」
「范石湖集」	「知不足齋叢書」	「帝鑑圖說」
「名臣奏議」	「隸辨」	「臣鑑錄」
「月令輯要」	「益知錄」	「左傳經世鈔」
「遵生八牋」	「幸魯盛典」	「理學備考」

□ 문성당(文盛堂)서점 목록(12종)

「王梅溪集」	「盛明百家詩」	「漁洋詩話」
「黃氏日鈔」	「皇清百家詩」	「荊川武編」
「食物本草」	「兵法全書」	「呂氏家塾讀詩記」
「八旗通志」	「虞道園集」	「本草類方」

□ 경유당(經映堂)서점 목록(3종)

「音學五書」	「大說鈴」	「今詩篋衍集」
--------	-------	---------

□ 취성당(聚星堂)서점 목록(6종)

「安雅堂集」	「吳草廬集」	「詩持全集」
「韓魏公集」	「宛雅」	「榕村語錄」

□ 대초당(帶草堂)서점 목록(9종)

「堯峯文鈔」	「漁隱叢話」	「明文授讀」
「精華箋註」	「觀象玩占」	「香樹齋全集」
「精華訓纂」	「篆書正」	「七修類考」

□ 육문당(郁文堂)서점 목록(2종)

「賴古堂集」	「李二曲集」
--------	--------

□ 문무당(文茂堂)서점 목록(6종)

「埤雅」	「范文正公集」	「闕里文獻考」
「許魯齋集」	「邵子湘集」	「班馬異同」

□ 영화당(英華堂)서점 목록(6종)

- | | | |
|----------|--------|--------|
| 「帝京景物略」 | 「三魚堂集」 | 「林子三教」 |
| 「群書集事淵海」 | 「廣群芳譜」 | 「楊龜山集」 |

□ 문환재(文煥齋)서점 목록(4종)

- | | |
|--------|-------|
| 「榕村集」 | 「觚賸」 |
| 「名媛詩歸」 | 「穆堂集」 |

이처럼 청장관은 연경에 가서도 쉴 새 없이 열심히 서점을 다니며 서적 정보의 수집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연경의 책방 12곳에서 한국에 없는 희귀서적 136종의 서적목록을 작성한다. 그는 “이 밖에도 두서너 개의 책방이 더 있었으나, 외잡(猥雜)하여 볼 것이 없었다.”고 하여 최소한 자신이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책방을 다니면서 책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밖에 목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리창(琉璃廠)에 있는 오류거(五柳居)서점에 방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청장관은 5월 25일 오류거서점에 들러서 그 서점 주인인 도씨(陶氏)가 “책을 실은 배가 강남(江南)에서 와 통주(通州) 장가만(張家灣)에 닿았는데, 내일이면 그 책을 이곳으로 수송하여 올 것이고 책은 모두 4천여 권이 될 것이다.”¹⁵⁾라는 말을 듣고, 서목(書目)을 얻어 왔는데, 거기에는 내가 평생 동안 구하려 하던 책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이한 모든 책들이 매우 많았다고 할 정도로 연경의 서적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다.

청장관은 도씨(陶氏)가 준 서목을 절강서목(浙江書目)과 비교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절강서목에 빠진 책들도 있었음¹⁶⁾을 알게 된다. 그가 이 책의 실물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는가? 그는 5월 28일 오류거(五柳居)를 다시 방문하여 강남(江南)에서 배편으로 온 기서(奇書)를 열람하고 그 과정에서 주이준(朱彝尊)의 「경해(經解)」와 마숙(馬驢)의 「역사(釋史)」 등의 희귀본을 비롯한 양서 수십 종을 구입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6월 2일에는 다시 「경해(經解)」를 열람하고 유

1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7, 入燕記 下, 정조 2년 5월 25일(甲申).

16) 앞의 책. 5월 28일.

학과 경학의 서고라고 감탄하면서, 그 책이 간행된 지 100여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그 존재를 모른다고 아쉬워하면서, 기존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수입해 오는 책이라고는 고작 연의소설(演義小說), 그리고 「팔가문초(八家文抄)」와 「당시품회(唐詩品彙)」 같은 서적만 가져와서 그렇다고 기존 사신들의 서적구입행태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청장관은 연경의 서점을 두루 다니면서 책을 열람한 후에 그 목록을 작성하고, 서적의 구입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4. 이덕무 목록론의 평가

여기에서는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을 조선후기 목록학자들의 업적과 비교해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목록학자라 하면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을 편찬한 김휴(金休)와 「규장총목(奎章總目)」을 편찬한 서명응(徐命膺), 서호수(徐浩修) 부자와 「누판고(鏤板考)」를 편찬한 서유구(徐有楨)와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과 「사부송유(四部誦惟)」를 편찬한 홍석주(洪奭周) 등을 들 수 있다.

「해동문헌총록」은 김휴(1594~1638)가 스승 장현광의 권유로 1616년(광해군 8년)에서 1638년(인조 16년)까지 약 20여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명문대가에 소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그 편찬목적은 임진왜란 때 비교적 피해를 덜 본 그 지역의 문헌목록을 편찬하여 후대에 문헌을 징빙(徵憑)하고, 고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⁸⁾

「규장총목」은 정조의 명에 의해 1781년(正祖 5年)에 편찬된 것으로 그 편찬목적은 규장각 장서에 대한 총목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누판고」는 1796(정조

17) 앞의 책. 6월 2일.

18) 裴賢淑, “海東文獻總錄에 대한 研究,”(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5), 5-36.

2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해 서유구가 편찬한 전국책판목록으로서 그 편찬목적은 전국에서 판각한 책판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홍씨독서록』과 『사부송유』는 홍석주가 편찬한 목록이다. 『홍씨독서록』은 그의 증제인 홍길주와 홍씨 문중의 제 후학의 독서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편찬한 해제목록이며, 『사부송유』는 그의 막내 동생인 홍현주와 연천 자신 또는 자신과 연령이 비슷한 노년층의 독서생활을 위해 편찬한 것이다.¹⁹⁾

조선후기의 대 목록학자인 김휴, 서호수, 서유구, 홍석주 등과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학적인 업적에 대해 평가를 할 경우 비교해 볼 때, 이들 보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청장관은 독립적인 목록을 편찬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서목록의 경우, 서적에 대한 해제를 독창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해동문헌총록』의 내용을 초록한 점 등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한국의 역사서목록을 정리했다는 점, 당시 선비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본서적목록을 제시한 점, 연행서점 목록을 자세하게 밝힌 점 등은 목록학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평가할 만하다.

5. 결 론

본 논문은 청장관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그의 목록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내용을 한국 역사서목록(韓國歷史書目錄), 일본서적목록(日本書籍目錄), 연행서점목록(燕行書店目錄)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역사서목록(韓國歷史書目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장관은 한국의 역사서목록 65종을 열거하였다. 이 책들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고구려시대의 저작이 2종, 신라시대의 저작이 3종, 고려시대의 저작이 13종, 조선시대의 저작이 45종이 있었고, 시대구분이 애매한 저작으로 2종이 있었다.

19) 이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서울: 아세아문화사, 2003).

서적의 당과별 구분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저작 45종 가운데, 조선후기 당쟁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동인과 서인의 분과 시점인 1575년(선조 8년) 이후에 나온 저작으로는 대략 20여종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노론, 소론, 남인의 저작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었다. 소론의 저작으로 박세채(朴世采)의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임상덕(林象德)의 『동사회강(東史會綱)』, 유계(兪槩)의 『여사제강(麗史提綱)』 등을 수록하였으며, 남인의 저작으로 유성룡(柳成龍)의 『동국명신인행록(東國名臣言行錄)』,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서인 노론 계통의 저작으로 이이(李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김육(金瑨)의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 홍계희(洪啓禧) 『경세지장(經世指掌)』 등을 수록하여 노론, 소론, 남인의 저작을 폭넓게 수록하였다.

역사서목록에 수록된 저작이 조선 후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해제목록에 얼마나 수록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동문헌총록』에 40종, 『누판고』에 3종, 『서서서목첩록』에 15종, 『서서서목초본』에 16종, 『홍씨독서록』에 9종이 수록되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해동문헌총록』에 있는 서적들이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이다. 저작의 수록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해제목록에 수록된 해제의 내용을 일일이 비교 검토하였는데,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40종의 서적의 경우 해제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축약한 흔적이 나타났다. 목록의 해제를 작성하는데, 청장관이 독창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록의 내용을 참조한 점은 그의 명성을 감안해 볼 때 여간 아쉽지 않다.

일본역사서목록(日本書籍目錄)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장관은 일본삼부본서(日本三部本書)란 제목 하에 일본 고대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구사기(舊事記)』, 『고사기(古事記)』, 『일본기(日本紀)』를 수록하였고, 일본육국사(日本六國史)란 제목 하에 『일본기(日本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문덕실록(文德實錄)』, 『삼대실록(三代實錄)』의 해제를 기술하였다. 또한 일본서적 185종에 대한 목록을 기재했는데, 저자를 기재한 경우는 74종이고, 서명만을 기재한 경우는 111종이었다. 이 일본서적목록은 조선후기 해제서목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본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본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또는 학문적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본서적목록의 제시는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는 좋은 서적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행서점목록(燕行書店目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덕무는 정조 원년 그의 나이 37세 때 연경에 가서 많은 서점을 누비면서 서적을 탐독하고 당시 조선에 없는 도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는 연경의 책방 12곳에서 한국에 없는 희귀서적 136종의 서적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보지 못한 희귀서적들을 탐독하고 서적의 구입에 열을 올렸다.

조선시대의 대목록학자라 할 수 있는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을 편찬한 김휴(金休)와 『규장총목(奎章總目)』을 편찬한 서명응(徐命膺), 서호수(徐浩修) 부자와 『누판고(鑄板考)』를 편찬한 서유구(徐有榘)와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과 『사부송유(四部誦惟)』를 편찬한 홍석주(洪奭周) 등을 이덕무의 업적과 비교해 볼 때, 그가 별도의 독립적인 목록을 편찬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서 목록의 경우, 서적에 대한 해제를 독창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해동문헌총록』의 내용을 상당 부분 가져다 쓴 점 등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역사서목록을 작성했다는 점, 일본서적목록과 연행 서점 목록을 작성한 점 등은 목록학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평가할 만하다.

<참고문헌>

강주진. “徐有榘 著 鑄板考.” 『한국학』 제2집(1974).

權政媛. “청장관 이덕무의 책독 연구.” 釜山大 教育大學院. 1996.

김경숙. 조선후기 韓·日 서적 교류 고찰: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중심으로. 『韓中人文科學研究』. 23(2008). 227-259.

김경희. “이덕무의 독서 방법론 연구: 『사소절』과 『이목구심서』를 중심으로.” 가

- 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金文植. “『宋史筌』에 나타난 李德懋의 역사인식.” 『韓國學論集』 제33집(1999. 10).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29-51.
- 金 泳. “이덕무의 讀書論.” 『東方學志』 36·37(1983. 9).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09-127.
- 김영호. “아정 이덕무의 ‘士’ 인식과 교육사상.”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윤식. “鏤板考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9.
- 김윤희. “이덕무의 독서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지연. “이덕무와 어윤중의 일관론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류재일. 『이덕무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8.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 리상용. “청장관 이덕무의 교감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33집(2006). 375-394
-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제7집(1976). 580-598.
-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해행총재』.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7
- 박문열. “靑莊館 李德懋의 『入燕記』에 관한 研究.” 『國際文化研究』 제13집 (1996. 3). 淸州大學校國際開發研究院. 81-104.
- 박문열. “靑莊館 이덕무의 生涯와 著述.” 『人文科學論集』 6(1987. 12). 淸州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87-214.
- 박채영. 玄川 元重擧의 通信使行錄 研究: 『乘槎錄』과 『和國志』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 박현욱. “조선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5
- 서유구. 『鏤板考』. 홍명희 교정본. 서울: 보림각, 1968.
- 송영희 외.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5.
- 심경호. “박지원과 이덕무의 회문 교환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31집 (2003). 89-112

- 오노 야스마로 지음, 강용자 옮김. 『고사기』. 서울: 일본 역사, 2009.
- 오소미. “『海行摠載』에 수록된 조선후기 일본사행록의 서지학적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2007.
- 이규필. “이덕무의 이목구심서에 대한 고찰.” 『한문학연구』 제19집(2005). 계명한문학회. 157-185.
- 이덕무.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신편 국역청장관 이덕무 전서 1-1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이덕무 지음, 권정원 옮김. 『책에 미친 바보: 이덕무 산문선』. 미다스북스, 2004.
- 이만수. “형암 이덕무의 독서론.” 『독서문화연구』 제7호(2007). 대진대학교 독서문화연구소. 29-65.
- 李玉子. “李德懋의 生涯와 學文傾向.” 全南大 教育大學院. 1997.
- 정 민. “李德懋의 산문소품: 漢書 이불, 論語 병풍.” 『문헌과 해석』 통권 2호(1998. 봄). 132-136.
- 정장식. “李德懋의 日本研究.” 『人文科學論集』 14(1995. 9). 淸州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97-122.
- 정해양. “형암 이덕무와 초경 박제가의 독서론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천혜봉.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 하우봉. “이덕무의 일본관에 대한 연구.” 『人文論叢』 제17집(1987). 全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59-193.
- 하우봉. “이덕무의 [청령국지] 에 대하여.” 『전북사학』 9(1985. 12). 전북대학교 사학회. 149-182.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89.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 사행록들: 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12(1986).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89.
- 홍석주저. 리상용역. 『역주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